

결론적으로 분화된 갑상선 암에서 암전이 병소의 발견에 있어 치료적 갑상선제거양을 투여한 경우에 더 많은 전이병소가 발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분화 갑상선 암에서 임원하지 않고 투여가 가능한 치료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으로 사료되나 분화 갑상선 암의 전이 여부 결정에 항시 치료양의 방사성옥소  $^{131}\text{I}$ 의 전신스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문제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0. 갑상선암에서의 Tl-201 및 I-131 전신신티그래피 소견

원자력병원 핵의학과

임 상 무 · 홍 성 운

Thallium-201은 심근혈류신티그래피에 흔히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로 갑상선암 조직 및 전이된 임파선 폐 등에 섭취됨이 보고되고 있다. Tl-201의 암조직에서의 섭취는 초기의 섭취가 증가하고, 지연영상에서 제거가 지연됨이 알려져 있으며, Tl-201 전신신티그래피는 혈청 TSH가 상승하도록 하는 전처치가 필요없고 특히  $^{99\text{m}}\text{Tc-pertechnetate}$ 나 I-131이 섭취되지 않은 병소에 섭취되어, 갑상선암의 경과 관찰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은 분화된 갑상선 암의 수술후 경과 관찰중인 26명의 환자에서 1989년 1월부터 4월까지 I-131과 Tl-201의 전신신티그래피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Tl-201의 암조직에서의 섭취후 지연 영상에서의 제거율은 정상 조직보다 낮았다.
- 2) Tl-201은 염증 조직에도 섭취됨이 관찰되었다.
- 3) 임상적으로 재발 및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I-131의 섭취가 없이 Tl-201만 섭취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관찰되었다.
- 4) 예민도는 Tl-201 전신신티그래피가 높았고 특이도는 I-131 전신신티그래피가 높았다.

이상에서 Tl-201과 I-131 전신신티그래피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갑상선 암의 치료후 경과 관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 11. 방사성옥소 전신스캔상 관찰된 정상간의 옥소집적

가톨릭의대 방사선과

양우진 · 박영하 · 정수교

김춘열 · 신경섭 · 박용휘

분화된 갑상선 세포암 수술 후 경과관찰 검사로 방사성옥소 전신스캔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스캔상 전위 부위외에 정상간에서도 옥소집적이 일어나는데, 그 빈도는 44%까지도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1983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가톨릭대학 의학부 부속 강남성모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성옥소 전신스캔 62예를 대상으로 정상간의 방사성옥소 집적율을 조사해 보았다.

환자는 유두상 또는 여포상선암을 앓고 있는 36명으로, 일부는 수술을 받았고 일부는 절제가 불가능하였다. 연령은 21~68세 이었으며, 36명중 평균연령은 45.8세 이었다. 이들에게서 시행한 총 스캔수는 62건이었고, 그중 55스캔은 I-131-NaI 2~5 mCi를 경구투여후 24~48시간에 시행하였고, 7스캔은 30~150 mCi의 치료용량 투여후 5~7일에 시행하였다.

모든 스캔에서 잔여 갑상선 외에 타액선, 대장 및 방광에 방사능집적이 있었고 6예에서는 미만성인 간섭취가 보였는데 이들의 간기능은 모두 정상이었다.

간접적을 보인 6예 중 3예는 30~100 mCi투여 후의 스캔이었고, 나머지 3예는 2~5 mCi 투여 후의 스캔이었다. 후 3예 중 2예는 경부림프절 및 두개골 등에 전이가 있었고, 각각 2개월 및 3개월전에 50 mCi 및 30 mCi의 방사성옥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방사성옥소 2~5 mCi를 투여한 다음 시행한 스캔에서 간접적을 보이면서 동위원소 치료를 받지 않았던 1예는 4년전 및 9개월전에 같은 용량으로 시행한 스캔에서는 간접적이 없었다.

저자들이 조사한 62예중 6예(9.7%)에서 방사성옥소 전신스캔상 미만성 간접적이 나타났으며, 이중 5예가 과거에 방사성옥소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 따라서 방사성옥소의 간접적 현상은 투여한 방사성옥소의 양 이외에 과거의 방사선조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